

揚雄 《方言》의 通語와 公同어

李 妍 周*

<目次>

I. 머리말	IV. 通語와 公同어
II. 《方言》의 체제와 내용	V. 맺음말
III. 《方言》에 있어서의 通語	

I. 머리말

중국언어사를 연구하다 보면 춘추전국시대나 秦漢시기의 언어상황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특히 당시의 구어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 더 그러하다. 중국학자들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고대 중국에는 서로 다른 민족과 언어가 존재했다. 그리고 이들 여러 민족들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융합되어 소위 華夏 역사공동체를 이룩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에 있어서도 융합을 통해 오늘날 중국어의 뿌리가 되는 公同어¹⁾가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욕구와

* 江原大學校 中語中文科 教授

1) 중국에서는 共同語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共通語라는 용어를 쓴다.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公同어를 公同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할 때 뉘앙스에 다른 부분이 있다. 참고로 중국어 백과사전상의 公同어의 의미와 국어사전상의 公同어의 의미는 각기 다음과 같다. 公同어(바이두 백과사전): “하나의 부락 혹은 민족 내부에 대다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고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것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어의 형식으로 점차 형성된 것이다. 이 지역은 통상 정치, 경제, 문

노력이 오랜 기간 중국의 언어학계에 존재해왔다. 이는 공통어를 통해 어느 한 시점에서 당시 언어상의 다양한 이질성이 극복되고 통합되어야만 이후의 중국어 발전과정이 보다 정연하게 설명될 수 있고, 지역 방언을 포함한 오늘날의 중국어가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춘추전국시대나 秦漢시기에 있어 공통어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하는 논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秦漢시기 공통어의 존재여부를 논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저술이 揚雄의 《方言》이다. 이 시기의 언어상황을 논함에 있어 《方言》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方言》이 수록된 어휘들의 사용지역을 밝히고, 같은 의미를 갖는 어휘들을 당시 통용되던 단어로 의미를 풀이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에 여러 지역 방언 외에 별도의 통용어가 존재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갖는 어휘들을 당시 통용되던 단어로 의미를 풀이한 것은 《爾雅》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비록 《方言》에서처럼 구분해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爾雅》에도 상당수의 지역어휘, 즉 방언어휘가 수록되어 있다.²⁾ 이를 생각한다면 당시에 지역 방언과 통용어가 존재했음은 《爾雅》를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이 당시의 언어상황을 논함에 있어 《方言》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제목상의 '方言'이라는 표현과 《方言》에 등장하는 '通語'라는 용어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국언어학사에 관한 중국학자들의 저술을 보면

화의 중심지역이며, 이러한 기초 위에 언어가 생겼고 후에 방언이 생겼다.” 공통어(국어사전): “여러 다른 종족이나 민족 사이에서 두루 쓰는 말 또는 여러 가지의 언어가 쓰이는 지역 안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말”과 “한 나라에서 두루 쓰는 언어”라는 두 개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공통어를 뜻하는 koine에 대해 “대개 같은 언어의 여러 방언을 절충하여 만든 공통어. 그러나 가장 우세한 방언을 쓰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예의 하나로 “7~10세기(唐代)에 중국 북부에서 쓰던 언어”를 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편의상 공동어와 공통어를 구분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 2) 《爾雅》는 대략 전국시대 말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수많은 선진시기의 고어, 방언, 사물의 명칭어휘 등을 집대성한 중국 최초의 훈고학서로, 이 시기에 이미 훈고학이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작이다.(寶秀艷(2004)을 참고하여 정리함)

《方言》상의 ‘通語’를 전국적인 公通어의 의미로 해석하고 이를 당시에 지역방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公通어가 존재했다는 증거로 삼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³⁾ 그러나 《方言》에서 ‘通語’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불과 35조항이며, 뒤에서 보겠지만 이는 풀이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풀이대상인 어휘나 지역방언 어휘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通語’를 전국적으로 통용되던 公通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본고에서는 《方言》의 체제와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方言》에서 ‘通語’라는 용어가 쓰인 예들을 살펴봄으로써 《方言》에 있어 ‘通語’의 올바른 의미를 밝히고자 하며, 이를 통해 ‘通語’라는 용어를 당시의 公通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II. 《方言》의 체제와 내용

西漢시기 揚雄(53B.C.~A.D.18)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方言》의 원제목은 《輶軒使者絕代語釋別國方言》이다. 제목이 말해주듯 “周나라와 秦나라 때 輶軒使者가 했던 일을 이어받아 옛말과 방언을 수집하고 풀이한 책”이다⁴⁾. 여기서 ‘方言’이란 요즘의 표준어에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며,

-
- 3) 沈兼士(1986)는 ‘通語’가 西漢 시기에 지역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보통화라고 주장하였다. 王力은 《中國言語學史》(1981)에서 ‘通語’라는 용어를 자주 언급했는데, 민족공통어라고 했다. 周祖謨의 《方言校箋·序》(1993), 張永言의 《訓詁學簡論》(1985), 胡朴安의 《中國訓詁學史》(1983), 劉葉秋의 《中國字典史略》(2004)에서 모두 이러한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柳玉宏(2007)에서 재인용) 濮之珍(1987)도 通語를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지역적 제한이 없으며, 서주시기에 통행지역이 비교적 광범위했던 公通어를 말한다고 했다. (109쪽)
- 4) 輶軒使者란 周秦시기에 輶軒이란 수레를 타고 각 지방을 돌며 방언, 동요, 민가 등을 수집하던 관리를 칭하는 바, 원제목이 뜻하는 바는《方言》이 이러한 과거로부터의 방언수집과정을 계승해 이루어졌고 당시의 각 지방 말에 대한 수집, 풀이에 그치지 않고 각 방언 중에 남아 있는 옛날 말의 어휘까지 풀이하고 있는 점, 그리고 漢나라에 의한 통일 이전 시기의 국가/지역구분을 포함

別國, 즉 漢에 의한 통일 이전시기의 국가 또는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수집한 어휘를 말한다. 당시 《方言》은 어휘연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생각되며, <劉歆이 揚雄에게 주는 서신>을 보면 《方言》이 편찬되던 시기의 시대적 과제와 이러한 《方言》저술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⁵⁾

《方言》은 원래 15권이었다고 하나 지금 현존하는 판본은 13권이며, 수록된 항목수는 659조항이다.⁶⁾ 각 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권에서 동

한 방식으로 방언을 수록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반면, 《輶軒使者絕代語釋別國方言》을 “輶軒使者가 絕代語(공통어)로 別國方言을 해석한 책”이라는 풀이는 잘못된 것이다. 絕代語는 공통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끊긴 말, 즉 옛말을 뜻한다.

- 5) <劉歆이 揚雄에게 주는 서신>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실려 있어 《方言》이 편찬되던 시기의 시대적 과제와 《方言》저술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명에 따라 夏, 殷, 周秦의 軒車使者와 邇人使者들이 매해 8월 각지를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다른 말(代語), 동요, 가사를 구하여 가장 일목요연한 세부 목록을 얻고자 했습니다. 郝隆이 정성을 다해 며칠 동안 그것을 구하였으며, 모은 것 중에는 그 목록만 있을 뿐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선친께서 여러 번 孝成帝께 마땅히 여러 선비들로 하여금 훈고를 모두 모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爾雅》에서 언급한 것과 오경의 풀이 가운데 《爾雅》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고, 여러 경전들에 미처도 모두 증거가 없으므로 박사들은 절세의 박학한 자들인데 때때로 그들의 견해가 옳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成帝께서 아직 뜻을 두지 않아 선친 역시 홀로 수집할 수가 없었습니다.(詔問三代周秦軒車使者, 邇人使者, 以歲八月巡路, 衆代語·歌謠·歌劇, 欲頗得其最目. 因從事郝隆衆之有日, 篇中但有其目, 無見文者. 歆先君數爲孝成皇帝言, 當使諸儒共集訓詁, 『爾雅』所及, 五經所詁, 不合『爾雅』者詁竊爲病, 及諸經氏之屬, 皆無證驗, 博士至以窮世之博學者, 偶有所見, 非徒無主而生是也. 會成帝未以爲意, 先君又不能獨集) …… 당신께서 《方言》을 쓰셨다니 매우 훌륭하십니다. 한 왕실에서는 경전의 해석에 신경을 쓰고, 서로 다른 말들(殊語)에 힘을 쏟음으로써, 사방의 일을 살피고자 하며 직접 사람들을 각지로 보내는 번거로움 없이 앉아서 세간의 상황들을 알고자 하니, 바로 당신이 뜻을 펼칠 시기로군요.(今聞此, 甚爲子雲嘉之已. 今聖朝留心典詁, 發精於殊語, 欲以驗考四方之事, 不勞戎馬高車之使, 坐知僑俗, 適子雲攘意之秋也.)”
- 6) 방언의 항목수를 659항목으로 나눈 것은 戴震의 《方言疏證》에 따른 것이며, 이를 675조항으로 나누는 학자도 있다.(周祖謨의 《方言校箋》)

사, 형용사, 명사 같은 어휘를 다루고 있으며, 제4권에서 의복을, 제5권에서 각종 그릇과 생산도구를, 제8권에서는 동물, 제9권에서는 수레나 병기를, 제11권에서는 곤충을, 제12권과 제13권은 《爾雅》의 <釋言>과 유사한 어휘들을 수록하고 있다.⁷⁾

《方言》은 기본적으로 어휘를 수집, 분류, 정리하고 해석한 책으로 《爾雅》를 모방했으며⁸⁾,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爾雅》의 체제를 따라 같은 의미를 갖는 어휘들을 나열하고 이를 당시에 통용되던 어휘로 풀이한 후 각 어휘가 사용되던 지역을 밝힌 것이다.⁹⁾ 《方言》에는 지역어나 通語 외에 古今語¹⁰⁾, 轉語¹¹⁾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語’는 모두 어휘를 지칭한다. 《方言》의 일반적인 형식의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같은 의미를 갖는 어휘들을 나열하고 이를 당시에 통용되던 어휘로 풀이한 후 각 어휘가 사용되던 지역을 밝힌 것으로 《方言》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
- 7) 明代의 陳與郊가 저술한 《方言類聚》에서는 《爾雅》의 체제에 의거해 《方言》을 釋詁, 釋言, 釋人, 釋衣, 釋食, 釋國, 釋器, 釋兵, 釋車, 釋舟, 釋水, 釋土, 釋草, 釋獸, 釋鳥, 釋蟲 등 16가지로 구분하였다.
 - 8) 常璩의 《華陽國志》 권10 <先賢士女總贊>에 揚雄의 저작상황을 설명한 대목에 “책 가운데는 《爾雅》보다 올바른 것이 없어 《方言》을 지었다.(典莫正於《爾雅》, 故作《方言》)”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점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관 외, 1999, 61쪽)
 - 9) 《方言》 제1권에서는 “嫁逝徂適, 往也.”(1-14)라고 한 후 어휘의 뜻과 사용 지역 등을 밝혔는데, “嫁逝徂適, 往也.”는 《爾雅》의 <釋詁>편에서 따온 것이다. 한편, 《方言》 제12권과 13권에는 단지 雅故만이 있어 揚雄이 《方言》의 편찬시 먼저 雅故를 모은 뒤 雅故에 근거하여 방언을 수집하였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雅故는 《爾雅》에서 온 것으로 여겨진다. (濮之珍 1987, 117쪽)
 - 10) 古今語는 古今之別語라고도 했는데 각 지역의 방언에 남아있는 옛말을 말한다. 이는 《方言》에 모두 2회 등장한다.
 - 11) 轉語는 語之轉이라고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차이로 말미암아 생긴 발음 또는 의미가 변한 어휘를 말한다. 轉語는 語之轉을 동일한 용어로 간주하더라도 《方言》에 총 6개 항목이 나온다.

“黨·曉·哲, 知也. 楚謂之黨, 或曰曉, 齊宋之間謂之哲.(당黨, 효曉, 철哲은 알다(지知)의 뜻이다. 楚에서는 당黨이라고 하고, 효曉라고도 하며, 齊와 宋에서는 철哲이라고 한다.)”(1-11²⁾)

“諍憎, 所疾也. 宋魯凡相惡謂之諍憎, 若秦晉言可惡矣.(순증諍憎은 미워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宋魯에서는 서로 미워하는 것을 순증諍憎이라고 하고, 秦晉에서 가오可惡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7-1)

“馬虻, 北燕謂之蛆蠅. 其大者謂之馬虻.(노래기를 北燕에서는 저거蛆蠅라고 한다. 그 중에 큰 것은 마유馬虻라고 한다.)”(11-20)

여기에서 《方言》의 대상어와 풀이어의 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대상어에는 방언어휘들이 나열되고 이를 풀이하는 풀이어에는 당시에 통용되던 어휘가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당시 통용되던 단어의 상용적 의미로 방언어휘들을 풀이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方言》에는 대상어에 나열된 어휘 중 사용지역이 언급되지 않은 어휘도 상당수 있는데 이들 어휘가 사용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방언어휘인지, 아니면 방언어휘가 아닌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紕·繹·督·雉, 理也. 秦晉之間曰紕. 凡物曰督之, 絲曰繹之.(비紕, 역繹, 독督, 치雉는 다스리다, 풀다(이理)의 뜻이다. 秦晉에 걸친 지역에서는 비紕라고 한다. 물건에 있어서는 독督(바로잡는다)이라고 하고, 실은 역繹(푼다)이라고 한다.)”(6-37)

“萃·雜, 集也. 東齊曰聚.(취萃, 잡雜은 모으다, 모이다(집集)의 뜻이다. 東齊에서는 취聚라고 한다.)”(3-18)

한편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의 경우는 《爾雅》와 마찬가지로

12) 이하 번호는 《方言》의 권수와 조항을 표기한 것으로, 戴震의 《方言疏證》본에 의거하였다.

로 단지 대상어와 대상어의 풀이어만을 기술하고 있다.

“巍·嶢·峭·嶮, 高也.(외巍, 요嶢, 쟁峭, 험嶮은 높다(高高)의 뜻이다.)”
(6-55)

“埤·塾, 下也. 凡柱而下曰埤, 屋而下曰塾.(열埤, 점塾은 아래의 뜻이다.
기둥 아래를 열埤이라고 하고, 집 아래를 점塾이라고 한다.)”(6-15)

“未陞天龍謂之蟠龍.(아직 하늘에 오르지 못한 용을 반룡蟠龍이라고 한다.)”(12-96)

또한 《方言》에는 풀이어에 대해 특정지역의 방언어휘임이 명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어휘가 통용어인 동시에 특정 방언지역에서 통용되는 어휘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予·賴, 讎也. 南楚之外曰賴, 秦晉曰讎.(여予, 뢰賴는 원수의 뜻이다. 南楚의 밖에서는 뢰賴라고 하고, 秦晉에서는 수讎라고 한다.)”(2-35)

“輶·軼, 鍊鑿. 關之東西曰輶, 南楚曰軼, 趙魏之間曰鍊鑿.(관輶, 대軼는 수레바퀴 끝의 휘갑쇠다. 함곡관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관輶이라고 한다. 南楚에서는 대軼라고 한다. 趙魏에 걸친 지역에서는 간대鍊鑿라고 한다.)”
(9-18)

“逢·逆, 迎也. 自關而東曰逆, 自關而西或曰迎, 或曰逢.(봉逢, 역逆은 맞이하다의 뜻이다. 함곡관으로부터 동쪽 지역에서는 역逆이라고 하고, 함곡관으로부터 서쪽 지역에서는 영迎이라고 하고, 또 봉逢이라고도 한다.)”
(1-29)

“舂, 燕之東北朝鮮洌水之間謂之舂, 宋魏之間謂之鑿, 或謂之錄. 江淮南楚之間謂之舂, 沅湘之間謂之舂, 趙魏之間謂之臬, 東齊謂之桴.(가래, 팽이는

燕의 동북, 朝鮮泲水에 걸친 지역에서는 조료라고 하며, 宋魏에 걸친 지역에서는 화궤라고 하며, 또 위궤라고도 한다. 江淮南楚에 걸친 지역에서는 삼궤이라고 하며, 沅湘에 걸친 지역에서는 분궤이라고 하고, 趙魏에 걸친 지역에서는 소궤라고 한다. 東齊에서는 리궤라고 한다.)”(5-26)

이러한 어휘들을 방언지역별로 통계를 내보면¹³⁾, 《方言》에서 풀이어가 秦晉지역의 어휘인 경우가 43항목, 周韓鄭지역인 경우가 11항목, 趙魏지역인 경우가 7항목이며¹⁴⁾, 이를 《方言》에 나오는 이들 지역의 총 어휘수에 대비해 보면 대략적으로 각각 14%, 8%, 6%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 수도인 長安이 秦晉지역에 위치해 이 지역이 당시 漢代의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과 周韓鄭과 趙魏지역이 秦晉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당시에 秦晉지역과 바로 인접한 周韓鄭지역, 趙魏지역 방언이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方言》에는 아래 예에서와 같이 대상어휘의 의미의 차이를 풀이한 것들도 있다.

“鬱悠·懷·怒·惟·慮·願·念·靖·愼, 思也. 晉宋衛魯之間謂之鬱悠. 惟, 凡思也. 慮, 謀思也. 願, 欲思也. 念, 常思也. 東齊海岱之間曰靖, 秦晉或曰愼, 凡思之貌亦曰愼, 或曰怒.(울유鬱悠, 회궤, 녀궤, 유궤, 려궤, 원궤, 녀궤, 정궤, 신궤는 생각하디의 뜻이다. 晉宋衛魯에 걸친 지역에서는 울유鬱悠라고 한다. 유궤는 무릇 생각한다는 뜻이다. 려궤는 무언가를 피하여 생각한다는 뜻이다. 원궤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다. 녀궤는 늘 생각하는 것이다. 東齊海岱에 걸친 지역에서는 정궤이라고 한다. 秦晉에서는 혹은 신궤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생각하는 모습도 역시 신궤이라고 하고, 혹은

13) 李恕豪(2002)가 《方言》에 나타난 방언지역을 12개 지역으로 구분한 것을 따랐다.

14) 이밖에 楚지역 어휘인 경우가 5항목, 南楚지역 어휘인 경우가 3항목으로, 이를 합치면 楚 또는 南楚지역인 경우가 8항목을 차지해, 楚, 南楚지역이 秦晉, 周韓鄭, 趙魏지역과 더불어 비중있는 방언지역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녉惻이라고도 한다.)”(1-11)

惟, 慮, 願, 念은 모두 대상어휘지만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어휘들이다. 이밖에도 《方言》에는 각 지방의 방언을 기록하면서 한자를 단순히 음표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黨·曉·哲, 知也. 楚謂之黨, 或曰曉, 齊宋之間謂之哲.(당黨, 효曉, 철哲은 알다의 뜻이다. 楚에서는 당黨이라고 하고, 혹은 효曉라고도 하며, 齊宋에 걸친 지역에서는 철哲이라고 한다.)”(1-1)

위의 예에서 ‘당黨’은 아마도 오늘날의 ‘동懂’의 진신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¹⁵⁾, 당시 楚지역에서는 ‘당黨’처럼 발음을 하였다는 것이지 ‘당黨’자체가 본래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 가운데 고증이 확실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상 살펴본 바를 토대로 당시의 언어상황에 대해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方言》이 통용지역이 밝혀진 지역 어휘를 포함해 의미가 같은 어휘들을 당시 통용되던 단어의 의미로 풀이했음을 볼 때 당시에 지역 방언¹⁶⁾과는 별도로 모종의 통용어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역적인 언어의 차이를 초월한 통용어가 존재했다”¹⁷⁾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당시의 통용어는 아마도 東周의 수도였던 洛陽과 秦과 西漢의 수도였던 長安이 위치한 秦晉지역 방언에 뿌리를 두었고 당시 발달된 서면어로부터 폭넓게 어휘를 흡수했으며 중앙지역이나 관료, 식자층에서 널리 이해되고 사용되지 않았을까 짐작될 뿐, 이의 정확한 통용범위나 구체적인 사용계층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동시에 《方言》에 기록된 것은 당시

15) 濮之珍(1987), 121쪽.

16) 이는 別國方言, 즉 秦나라에 의한 중국통일 이전의 구분에 입각한 개별 국가, 지역에서 사용되는 어휘라는 뜻이지 결코 표준어와 대비하여 사투리라는 뜻이 아니다.

17) 이병관 외(1999), 71쪽.

의 말이 아닌 어휘(語)이며, 아마도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 문자 표기가 가능한 것들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⁸⁾ 물론 서면어와 구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 구어가 서면어에 반영되고 거꾸로 서면어에 사용되던 어휘가 구어에 유입되기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당시의 통용어를 구어였다고 단정하거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어(또는 공용어)였다고 결론을 내릴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 당시에 구어형태의 통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方言》에 수록된 풀이어 어휘들이 반드시 구어에서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이러한 가운데 주목하게 된 것이《方言》상의 ‘通語’라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Ⅲ. 《方言》에 있어서의 通語

《方言》에는 ‘通語’(凡語, 凡通語, 四方之通語 포함)라는 용어가 35회에 걸쳐 등장하는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어휘 또는 어휘들을 통용지역에 제한 없이 직접 通語, 凡語, 凡通語라고 한 경우가 23조항, 특

18) <揚雄이 유흠에게 답하는 편지>에 보면, “그러므로 서울에 온 관리와 조정에서 천거된 거인 및 돌아가면서 서울을 지키는 사병들이 모이면 저는 언제나 세치의 가는 붓과 기름떡인 비단 세척을 가지고 서로 다른 말(語)들을 물어 돌아오는 즉시 낱으로 서판에 기록하였습니다.(故天下上計·孝廉及內郡衛卒會者, 雄常把三寸弱翰, 齋油素四尺, 以問其異語. 歸卽以鉛摘次之於槩)”라는 구절이 나와 당시 揚雄이 방언어휘를 조사한 과정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방언을 “살아있는 입말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 조사하여 기록, 배열, 정리한 저술”(濮之珍, 125쪽)이라고 하거나 “문자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대중의 살아있는 언어를 대상으로 삼았다”(周祖謨(1956), 濮之珍 107쪽에서 재인용)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닐까 생각된다.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 없었던 당시, 수집 또는 확인된 수많은 입말 어휘들을 문자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물론 《方言》에는 음을 빌려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휘들이 있고, 또 실생활에 쓰이는 물건의 명칭어휘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시대적 제약으로 인해 《方言》에 수록된 어휘 중 당시의 입말어휘는 일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지역의 通語 또는 通名이라고 한 경우가 8조항, 어느 지역과 지역 간의 通語라고 한 경우 3조항, 그리고 四方之通語라고 한 경우가 1조항이다. 이들 通語는 특정 조항의 풀이어인 경우도 있고, 풀이 대상이 되는 어휘(이하 대상어)인 경우도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어휘 또는 어휘들을 통용지역에 대한 제한 없이 그냥 通語, 凡語, 또는 凡通語라고 한 조항은 1-3, 1-6, 1-14, 1-21, 2-1, 2-2, 2-32, 3-15, 3-53, 4-40, 4-41, 5-5, 5-10, 7-13, 7-17, 7-34, 10-3, 10-9, 10-28, 10-35, 10-45, 13-136, 13-146 이 있으며, 특정지역의 通語 또는 通名이라고 한 조항은 3-51(楚通語), 4-36(楚通語), 10-32(楚通語), 9-24(秦晉之通語), 10-8(南楚之外通語), 10-18(揚楚通語), 10-33(楚郢以南東揚之郊通語), 11-1(西楚與秦通名) 이다. 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 간의 通語라고 한 조항은 1-9(自關而東汝潁陳楚之間通語), 4-39(趙魏之間通語), 13-145(自關而東陳楚宋衛之間通語) 이고, 四方之通語라고 한 조항은 3-27이다.

한편 이를 용도를 포함, 실제 등장한 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1. 그 조항의 풀이어가 通語, 凡語, 凡通語인 경우가 15조항으로, 1-3, 1-14, 2-1, 2-2, 3-15, 4-40, 4-41, 5-5, 5-10, 7-13, 7-17, 7-34, 13-136, 13-145, 13-146 의 경우이다. 《方言》제2권에 “鈔·嫫, 好也. 青徐海岱之間曰鈔, 或謂之嫫. 好, 凡通語也.(초鈔, 료嫫는 예쁘다(호好)의 뜻이다. 青徐海岱에 걸친 지역에서는 초鈔라고 하고, 또 료嫫라고도 한다. 호好(예쁘다)는 凡通語다.)”(2-1)라고 한 것이 이에 속한다.

2. 대상어이며 방언어휘가 通語라고 된 경우가 5조항으로, 1-6, 3-53, 10-9, 10-28, 10-45 의 경우이다. 《方言》제1권에 “憮·掩·憐·牟, 愛也. 韓鄭曰憮, 晉衛曰掩, 汝潁之間曰憐, 宋魯之間曰牟, 或曰憐. 憐, 通語也.(무憮, 엄掩, 런憐, 모牟는 사랑하다(애愛)의 뜻이다. 韓과 鄭에서는 무憮라고 하고, 晉과 衛에서는 엄掩이라고 하며, 汝潁에 걸친 지역에서는 런憐이라고 하고, 宋과 魯에 걸친 지역에서는 모牟라고 하거나 혹은 런憐이라고 한다. 런憐은 通語다.)”(1-6)라고 한 것이 이에 속한다.

3. 대상어에 속하지만 사용지역은 언급되지 않은 어휘가 通語인 경우가 2조항으로, 1-21, 10-35 의 경우이다. 《方言》제10권에 “頷·頤, 頷也. 南楚謂之頷, 秦晉謂之頤. 頤, 其通語也.(합頷, 이頤는 턱(합頷)의 뜻이다. 南楚에서는 합頷이라고 하고, 秦晉에서는 합頤이라고 한다. 이頤는 그 通語다.)”(10-35)라고 한 것이 이에 속한다.

4. 楚通語, 秦晉之通語, 南楚之外通語, 揚楚通語, 楚郢以南東揚之郊通語, 西楚與秦通名 등은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특정 지역에서 또는 제한된 특정지역에서) 통용되는 어휘를 말하며 이런 지역 通語들은 모두 8조항이다. 《方言》제3권에 “撲·翕·葉, 聚也. 楚謂之撲, 或謂之翕. 葉, 楚通語也.(박撲, 흡翕, 엽葉은 모이다. 모여 있다는 뜻이다. 楚에서는 박撲이라고 하거나, 혹은 흡翕이라고 한다. 엽葉은 楚의 通語다.)”(3-51)라고 한 것이 이 경우이다.

5. 어느 지역과 지역 사이의 通語라고 한 것은 모두 3조항인데, 예는 다음과 같다. 《方言》1-9에 “悼·怒·悴·憊, 傷也. 自關而東汝潁陳楚之間通語也. 汝謂之怒, 秦謂之悼, 宋謂之悴, 楚潁之間謂之憊.(도悼, 녀怒, 취悴, 은憊은 상하다, 다치다(상傷)의 뜻이다. 함곡관 동쪽 지역의 汝潁陳楚에 걸친 지역에서 通語다. 汝에서는 녀怒이라 하고, 秦에서는 도悼라고 하며, 宋에서는 취悴라고 하고, 楚와 潁에 걸친 지역에서는 은憊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悼, 怒, 悴, 憊은 함곡관으로부터 동쪽의 汝潁陳楚에 걸친 지역에서 通語이며, 각각 汝에서는 怒, 秦에서는 悼, 宋에서는 悴, 楚潁之間에서는 憊이라고 했고, 풀이하는 傷이다. 《方言》제4권에 “覆結謂之幘巾, 或謂之承露, 或謂之覆髮. 皆趙魏之間通語也.(상투 위에 덮어 쓰는 위가 뚫린 두건인 복결覆結은 책건幘巾이라고 하거나, 또는 승로承露이라고 하거나, 또는 복채覆髮라고 한다. 모두 趙魏에 걸친 지역에서 通語다.)”(4-39)라고 했다. 《方言》제10권에 “媠·嬾·鮮, 好也. 南楚之外通語也.(媠, 嬾, 鮮은 好의 의미로, 南楚之外的 通語이다.)”(10-8)라고 했다.

6. 四方之通語가 사용된 경우는 1조항인데, 《方言》제3권에 “庸·忞·比·佺·更·佚, 代也. 齊曰佚, 江淮陳楚之間曰佺, 餘四方之通語也.(용庸,

자恣, 比比, 疇疇, 疇更, 疇佚은 대신하다는 뜻이다. 齊에서는 일佚이라고 하고, 江淮陳楚에 걸친 지역에서는 疇疇이라고 한다. 여餘는 四方之通語다.)”(3-27)라고 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方言》에 등장하는 通語

通語(권-조항)	구 분	사용지역	등장유형
好(1-3)	通語	-	풀이어
憐(1-6)	通語	楚, 衛宋~ 齊魯	대상어 (풀이어:愛)
往(1-14)	凡語	-	풀이어
于(1-21)	通語	-	대상어 (풀이어:大)
好(2-1)	凡通語	-	풀이어
豐(2-2)	通語	趙魏~燕代	풀이어
擻, 撫(2-32)	通語		대상어 (풀이어:取)
詐(3-15)	通語	-	풀이어
知(3-53)	通語	南楚	대상어 (풀이어:愈)
履(4-40)	通語	秦晉	풀이어
絞(4-41)	通語	-	풀이어
栝(5-5)	通語	-	풀이어
瞿(5-10)	通語	周韓鄭~趙魏	풀이어
逮(7-13)	通語	-	풀이어
熟(7-17)	通語	-	풀이어
逗(7-34)	通語	-	풀이어
央亡, 嚙屎, 婚, 猾(10-3)	通語	-	대상어 (풀이어:獐)
囁(10-9)	通語	秦晉~周韓 鄭~東齊海岱	대상어 (풀이어:拏)

耀(10-28)	通語	-	대상어 (풀이어:短)
頤(10-35)	通語	-	대상어 (풀이어:頤)
闕(10-45)	通語	南楚	대상어 (풀이어:視)
簾(13-136)	通語	-	풀이어
翹(13-146)	通語	-	풀이어
葉(3-51)	楚通語		대상어 (풀이어:聚)
倒頤, 校紵(4-36)	楚通語		대상어(풀이어: 大袴, 小袴)
悅, 舒(10-32)	楚通語		대상어 (풀이어:蘇)
筏(9-24)	秦晉之通語		대상어 (풀이어:籊)
婬, 嬾, 鮮(10-8)	南楚之外 通語		대상어 (풀이어:好)
哂, 曬(10-18)	揚楚通語		대상어 (풀이어:乾物)
眠挺, 脈蜴, 賜施, 芟媿, 譴謾, 慳怵(10-33)	楚郢以南東揚之 郊通語		대상어 (풀이어:欺謾)
虻螳, 蜚螳, 蜚螭(11-1)	西楚與秦 通名		대상어 (풀이어:螭蚘)
悼, 怒, 悴, 愁(1-9)	自關而東汝潁陳 楚之間 通語	汝: 怒 秦: 悼 宋: 悴 楚潁之間: 愁	대상어 (풀이어:傷)
幘巾, 承露, 覆槃(4-39)	趙魏之間 通語		대상어 (풀이어:覆結)
錫(13-145)	自關而東陳楚宋 衛之間 通語		대상어 (풀이어:飴)
庸, 恣, 比, 更(3-27)	四方之通語	-	대상어 (풀이어:代)

한편 위 1~6 의 각 경우에 있어 ‘通語’를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公同어로 해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1. “鈔·嫫, 好也. 青徐海岱之間曰鈔, 或謂之嫫. 好, 凡通語也.”(2-1)에서처럼 풀이어를 通語라 칭한 조항은 15조항에 불과한 바, 그렇다면 나머지 조항에서의 풀이어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公同어가 아닌가?

2. “撫·掩·憐·牟, 愛也. 韓鄭曰撫, 晉衛曰掩, 汝潁之間曰憐, 宋魯之間曰牟, 或曰憐. 憐, 通語也.”(1-6)에서처럼 특정 대상어를 通語라 칭한 조항의 경우(5조항), 풀이어와 通語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예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어휘인 ‘愛’(풀이어)를 두고 왜 汝潁之間과 宋魯之間에서 사용되는 방언어휘를 通語라고 칭했을까?

3. “頷·頤, 頷也. 南楚謂之頷. 秦晉謂之頤. 頤, 其通語也.”(10-35)에서처럼 대상어에 나열되어 있지만 사용지역이 표시되지 않은 어휘가 通語로 칭해진 경우(2조항), 풀이어‘頷’과 通語‘頤’는 어떤 관계인가? 왜 通語‘頤’ 대신 ‘頷’이 풀이어로 사용되었을까?

4. “撲·翕·葉, 聚也. 楚謂之撲, 或謂之翕. 葉, 楚通語也.”(3-51)라고 했는데, 楚 지역에서 사용된 어휘‘撲’, ‘翕’은 楚通語인 ‘葉’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差·間·知, 愈也. 南楚病愈者謂之差, 或謂之間, 或謂之知. 知, 通語也.”(3-53)라고 했는데, 南楚지역에서 사용된 어휘 ‘差’, ‘間’, ‘知’ 가운데 通語 ‘知’는 ‘差’, ‘間’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또 通語 ‘知’와 풀이어 ‘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5. “悼·怒·悴·愁, 傷也. 自關而東汝潁陳楚之間通語也. 汝謂之怒, 秦謂之悼, 宋謂之悴, 楚潁之間謂之愁.”(1-9)와 같은 경우, 풀이어 ‘傷’과 함곡관으로부터 동쪽 汝潁陳楚之間의 通語인 ‘悼’, ‘怒’, ‘悴’, ‘愁’은 어떤 관계인가? 또 어느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 쓰이는 通語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6. “庸·恣·比·佻·更·佚, 代也. 齊曰佚, 江淮陳楚之間曰佻, 餘四方之通語也.”(3-27)라고 해 齊에서 사용된 佚과 江淮陳楚之間에서 사용된 佻을 제외한 나머지 庸, 恣, 比, 更을 四方之通語라 했는데, 通語가 전국적으로 쓰이는 통용어를 의미한다면 굳이 四方之通語라는 용어는 불필요하지 않았을까? 四方之通語는 사용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한 (또는 않는) 어휘 들임을 말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方言》에 쓰인 通語를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어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된다. 만약 通語가 당시의 공통어를 지칭했다면 이는 풀이어에 국한해 나타나거나, 혹은 대상어에 나타나더라도 그 통용지역이 제한되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설령 풀이어로 사용된 어휘들에 대해서는 굳이 通語라 칭할 필요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35번에 국한해 通語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과 대상어에 등장하면서 통용지역이 어느 한 방언지역 또는 몇몇 방언지역으로 국한된 어휘가 通語라고 칭해진 점은 《方言》에서 通語가 방언의 상대개념으로서의 공통어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揚雄 당시 通語는 언어학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었던 바 아마도 揚雄은 通語를 해당 어휘의 일상적인 의미, 즉 통용되는 어휘라는 뜻으로 사용했을 것이며, 柳玉宏(2007)의 지적처럼 어떤 단어의 통용되는 정도를 해석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이다.¹⁹⁾

그럼에도 다수의 저술에서 《方言》상의 ‘通語’라는 용어를 당시의 공통어를 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方言》상에서 풀이어로 쓰인 어휘들과 通語로 칭해진 어휘를 합쳐 通語라고 해석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인다.²⁰⁾ 당시에 모종의 공통어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方言》상에서 ‘通語’란 단순히 특정 어휘들이 통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으며, 지칭된 어휘들이 어느 지역 또는 몇몇 지역에 걸친 보다 넓은 지역에서 통용되는 어휘라는 의미로 사용

19) 柳玉宏(2007)은 《方言》에 나온 通語의 용례를 살펴 通語가 어떤 단어의 통용되는 정도를 해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解釋某個詞通行情況的說法)고 하고, 《辭海》와 《漢語大詞典》상에 수록된 의미 중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단어(非地區性的普通詞語)’라는 의미가 아닌 단순히 ‘통용되던 표현방식(通行的說法)’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해석했다.(전자의 의미는 후대인들이 줄곧 그렇게 사용해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형성된 의미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통어로 방언을 풀이했다고 함으로써(以共同語釋方言) 풀이어를 공통어로 보았다.

20) 李恕豪(2002)는 《方言》에 나온 通語는 당시의 공통어이며, 《方言》에서 풀이어로 쓰인 어휘들도 모두 通語라고 간주하였다.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¹⁾

IV. 通語와 公通어

그렇다면, 《方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학자들이 왜 굳이 ‘通語’를 전국적인 통용어를 칭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通語’라는 용어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秦漢 이전, 즉 고대 중국의 언어상황을 보면 중국이 周나라 시기 周 왕실을 중심으로 한 봉건통치체제를 구축했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한자나 서면어의 사용이 촉진되었다. 한편 중원 지역, 나아가 당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던 변방 사이에 하나의 역사공동체로서의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상호간 의사소통 수단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한자나 서면어의 사용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사상을 교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중국은 고대에 각지의 사람들 간에 언어가 통하지 않았으며²²⁾, 秦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시기만 하더라도 말은 소리가 다르고 문자는 형태가 달랐다.²³⁾ 또한 서면어의 경우 다음에서 나타나듯 춘추전국시기의 문헌들 사이에 상당한 언어적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함이 언급되고 있다.²⁴⁾

(a) 《左傳》과 《國語》에 사용된, 아마도 중앙지역의 방언에 기초하고

21) 《方言》의 ‘通語’라는 용어가 학자들의 주목을 끈 것은 1900년대 들어 중국에서 민족공통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난 이후가 아닐까 생각된다. 《方言》은 漢代 이후 오랫동안 《爾雅》와 같은 훈고류의 저술로 인식되어 왔다.

22) 《禮記·王制》 하편: “五方之民 言語不通.”

23) 許慎의 《說文解字·序》: “語言異聲, 文字異形.”

24) Pullyblank(1995: 3). 양세욱(2005, 139쪽)에서 재인용.

- 있고 《詩經》과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고어형태의 문어
- (b) 《論語》(좀 더 고어형태)와 《孟子》(좀 더 진화된 형태)에 사용된 魯 방언
- (c) <離騷>를 비롯한 楚辭의 초기 작품들에 사용된 楚 방언
- (d) 《莊子》, 《荀子》, 《韓非子》 등의 문헌에서는 표준 공통문어로서의 진전을 보여주는 하지만, 문헌들 사이에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기원전 3세기의 방언

이런 가운데 秦漢시대 초기의 구어에 있어서의 공통어의 존재여부나 이의 구체적 실체에 대해서는 아마도 수도인 長安이 위치한 秦晉지역에서 사용되던 언어가 기초방언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과 당시에 성숙한 단계에 와있던 서면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 외에 별로 확실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이미 논한 바 있다.

이러한 실증적 자료의 부재 속에서 이 시대의 언어상황, 특히 중국어에 있어 공통어의 계보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적 단서가 되는 것이 《論語·述而篇》에 보이는 “雅言”²⁵⁾이라는 용어와 揚雄 《方言》에 등장하는 ‘通語’라는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용어는 얼핏 고대 중국어에 있어 구어로서의 공통어의 구체적 실증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25) 《論語·述而篇》: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 이에 대해 주희는 《論語集注》에서 ‘雅’를 ‘常’으로, ‘雅言’을 ‘常言’, 즉 ‘늘 하는 말씀’의 의미로 해석해,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은 《詩》, 《書》와 의례를 집전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을 늘 말씀하셨다”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고, 청의 학자들은 ‘아언’을 당시의 ‘官話’로 해석해 “선생님께서 雅言으로 말씀하실 때는 《詩》《書》를 읽을 때나 의례를 집전할 때이다.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아언으로 말씀하셨다”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다. (양세욱, p.140에서 재인용) 한편, 濮之珍은 《중국언어학사》(1987)에서 위 구절에 대한 鄭玄의 해석을 토대로 이를 정규적인 독서언어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청대학자들의 해석을 좇아 雅言을 당시의 공동어로도 해석하기도 했다.(濮之珍, 112, 113쪽) 藤堂明保(1956)는 ‘雅言’을 東周의 수도인 洛陽의 방언을 근간으로 한 공통어로, 고어가 보존되어 있기도 하고 각지의 방언어휘를 도입하여 절충적이고 인공적이기도 한 것으로, 실제 구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양세욱, 141쪽에서 재인용)

실마리를 제공하는 듯 보인다.

특히 ‘通語’를 방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석할 때 통용어의 존재는 하나의 실체로 드러나게 된다. 濮之珍(1995)에서 “통용어는 凡語, 凡通語, 또는 通名이라 칭해지는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다. 이것은 지역적 제한이 없으며, 西漢시기에 통행 지역이 비교적 광범위했던 공동어를 말한다.”²⁶⁾라고 하고 “각 방면의 문헌자료들은 모두 중국어가 漢代에 이미 ‘독특한 漢민족의 민족공동어’로 형성되도록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준다. 揚雄의 《方言》에 보이는 ‘通語’는 그 좋은 증거다.”²⁷⁾라고 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濮之珍은 《方言》에 등장하는 ‘通語’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당시 방언도 존재하고 전국적인 공동어도 존재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다른 중국학자들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저술이나 논문에서도 종종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반복되며, 때로는 더 확대되기도 한다.²⁸⁾

그러나 앞서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通語’는 당시 公通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지칭된 어휘가 “어느 지역, 또는 몇몇 지역에 걸친 보다 넓은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는 어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通語’라는 용어를 당시의 公通어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 증거로 보는 시각은 수정되어야 하며²⁹⁾, 당시의 公通어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개로 많은 기초적인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6) 濮之珍(1987), 109쪽.

27) 濮之珍(1987), 113쪽.

28) 이병관 외(1999): “漢代에 지역적인 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용어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方言》에서의 ‘通語’, ‘凡語’ 등과 같은 용어는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통용어라는 의미로서, 이미 당시에 오늘날 중국어 보통화와 같은 민족공통어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71쪽)

29) 《方言》이 문자로 기록된 언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대중의 살아있는 언어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지나치면 《方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다. 청대까지만 해도 《方言》은 《爾雅》와 같은 훈고류의 저서로 간주되었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方言》의 체제와 내용을 살펴본 후 ‘通語’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通語’의 의미를 논해 보았다. 더불어 通語가 당시의 공통어처럼 해석된 배경과 맥락을 추정해 보고, 이러한 시각이 수정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秦代의 정치적 통합 이후 중국언어학사의 측면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일은 문자에 대한 통일이었다. 문자의 통일이 이루어진 후 漢代에는 揚雄 《方言》이 저술되었고 각 지역어휘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東漢시기에 이르러서야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反切이 등장하고, 이후 魏晉시기에 이르러 글자마다 정확한 발음을 기록한 韻書가 생기게 되고 이로써 글자의 독음 표준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 문자의 통일, 어휘유입과 융합, 독음의 표준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글자에 대한 독음의 표준화도 이루어지기 전에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공통어의 존재를 논하고 더 나아가 언어의 통일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이치상으로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 隋唐 시대에 이르러 魏晉南北朝 분열기를 거치면서 언어의 융합이 가져온 혼란스러워진 독음을 바로 잡기 위한 운서의 편찬, 보급이 본격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공통어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方言》은 중국언어학사상 매우 뛰어난 저작으로 秦漢시기의 언어상황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저작이다. 그럼에도 《方言》이 ‘通語’라는 용어를 통해 당시 구어로서의 공통어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중국어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시작부터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국내 학자들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국내의 중국언어사 연구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앞으로 국내 학계에서도 《方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參考文獻>

- 공재석, <漢代 방언 중 朝鮮方音에 관하여>《동양학》5, 1975.
- 김상원, <瞿秋白의 ‘현대적 公同어’의 新中國文 연구>, 《중국문학연구》, 제39집, 2009.
- 김수연, <근대한어의 규범화와 국어의 창출>, 《중국어문논총》, 제44집, 2010.
- 김중섭, <중국어 표준화정책 연구>, 《인문학연구》제9집, 2002.
- 김훈호, <청말, 民國초기의 중국어 표준어 교육>, 《중국인문과학》, 제45집, 2010.
- 김훈호·안기섭, <청대의 정음 교육과 정음 교재의 음운 체계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27호, 2004.
- 박한제 외, 《아틀라스중국사》(사계절출판사), 2007.
- 濮之珍 저, 김현철외 역, 《중국언어학사》(신아사), 1997.
- 양세욱, <중국 共通語의 계보: ‘雅言’에서 ‘普通話’까지>, 《중국문학》, 제45집, 2005.
- 王力 저, 이종진외 역, 《중국언어학사》(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 王明珂 저, 이경룡 역, 《중국화하변경과 중화민족》(동북아역사재단), 2008.
- 이병관 외, 《중국언어학사 (상)》(보성), 1999.
- 이연승, 《揚雄: 어느 한대(漢代) 지식인의 고민》(태학사), 2007.
- 이연주, <揚雄《方言》과 중국어에 있어 방언의 문제>, 《인문과학연구》 26, 2010.
- 이익섭, 《방언학》(민음사), 2006.
- 이현숙, <《方言》중의 朝鮮涑水之間語彙釋例研究>, 《中語中文學》17, 1995.
- 전광진, <방언의 체제 및 중국어 언어학사에 있어서의 위상>(中文), 1990.

- 제리 노먼 저, 전광진 역, 《중국언어학총론》(동문선), 1996.
- 주성일, <명대 관화의 성질과 기초방언 소고>, 《중국문학연구》 제22집, 2001.
- 주성일, <조선시대 학습용 중국어와 명대 관화의 성질>, 《중국문학연구》 제36집, 2008.
- 周震鶴·游汝杰 저, 전광진·이연주 역, 《방언과 중국문화》(영남대학교출판부), 2005.
- 홍승현, 《중국과 주변》(혜안), 2009.
- 최동표, 《揚雄<方言>연구》, 서울대학 중문학과 석사논문, 1988.
- 白兆麟, <《方言》雙音詞探析>, 《古籍整理研究學刊》1999:2期.
- 戴震, 《方言疏證》(中華書局), 1974.
- 丁啓陣, 《秦漢方言》(東方出版社), 1991.
- 寶秀艷, 《中國雅學史》(齊魯書社), 2004.
- 華學誠, <論《說文》的方言研究>, 《鹽城師範學院學報》22:2, 2002.05.
- 華學誠, 《揚雄方言校釋匯證》(中華書局), 2006.
- 華學誠, 《周秦漢晉方言研究史》(復旦大學出版社), 2007.
- 李恕豪, <從郭璞注看晉代的方言區劃>, 《天府新論》, 2000:1期.
- 李恕豪, 《揚雄《方言》與方言地理學研究》(巴蜀書社), 2002.
- 雷虹霽, 《秦漢歷史地理與文化分區研究》(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7.
- 柳玉宏, <說‘通語’>, 《蘭州學報》2007:5期(總164期)
- 陸華, <論《方言》對《爾雅》古今語的記述>, 《南寧師範專科學院學報》, 2001:3期.
- 盧文昭, 《重校方言》(中華書局), 1985.
- 松江崇, <漢代方言中同言線束——也談根據方言的方言區劃論>《揚雄方言校釋匯證》下冊(中華書局), 2006.
- 王彩琴, <揚雄《方言》用字研究>, 華東師大博士論文, 2006.
- 王智群, <《方言》與揚雄詞彙學思想研究>, 華東師大博士論文, 2007.
- 周祖謨, 《方言校箋》(中華書局), 1993.

<中文提要>

討論秦漢時期是否存在共同語，要數揚雄的著作《方言》最爲典型的參考範例。很多學者將《方言》中出現的‘通語’一詞解釋爲使用於全國範圍的共同語，並將此作爲地域方言與共同語在當時並存的依據。但仔細觀察《方言》中‘通語’的使用例子就會發現將‘通語’理解爲使用於全國範圍的共同語一說是有問題的。本文將對《方言》中的體例與內容進行分析，然後對‘通語’一詞使用情況也做分析，進而明確《方言》中‘通語’的正確意義。另外，還將對‘通語’被解釋爲共同語的語言史上的意義和背景也進行推敲，並指出需要糾正已往以‘通語’解釋爲全國範圍的共同語的觀點。本文認爲在漢語的發展史上文字的統一，詞彙的彙集，讀音的標準化是按順序而發生的。經過魏晉南北朝的分裂期，語言也經歷了一個複雜的融合過程，到了隋唐時期爲正音而出現了韻書，關於共同語的問題一定是經過這樣的過程之後才能意識到的。

주제어 : 방언, 통어, 공동어, 진한시기 어휘, 중국언어학사, 훈고학

